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눈이 오는가 북쪽엔

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

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

백무선 철길 위에

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

화물차의 검은 지붕에

연달린 산과 산 사이

너를 남기고 온

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

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

어쩌자고 잠을 깨어3

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

눈이 오는가 북쪽엔

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

- 이용악, <그리움> -

(나)

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

가름젱이 사래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

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.

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

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

그곳을 지나다녔지

수수알이 ㉠ 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

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

아랫냇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

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

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

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

나 그 아래 냇가에 소고삐를 풀어놓고

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

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

㉡ 솨르르 솨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

고개를 들면 아, ㉢ 청청히 푸르던 하늘

갑자기 무섬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

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

㉣ 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

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랑한 웃음소리

나 그곳에 오래 앉아

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㉤ 또랑또랑 익는 냄새며

잔돌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

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

소를 몰고 돌아오다가

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

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

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

- 이시영, <마음의 고향 2 - 그 언덕> -